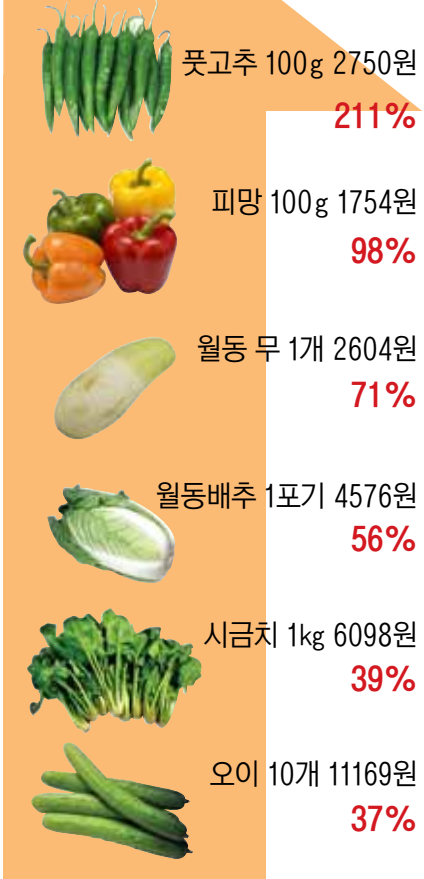


한파·폭설...장바구니 물가 '급등'

한달새 풋고추 211%·피망 98%·월동 무 71% 급등

농작물 냉해 피해 수급 불안정...명절 앞 서민 부담 가중



“차례상에 필요한 것만 몇 개 집어 담았는데도 20만원이 금방 넘겨버리네요.”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박복이(여·62·광산구 소촌동)씨는 “이번 설 명절 물가가 큰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장을 보러 나오니 그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최대한 지출을 아껴보지만 주요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라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매서운 추위가 설 명절 장바구니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한파에 시설하우스 재배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난방용 연료 사용량이 늘면서 채소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개월 전 10개에 1만1169원 오이의 소비자가격은 이날 기준 1만5313원으로 37.1%가 올랐다. 애호박 역시 개당 1730원에서 2631원으로 52.1%나 올랐다.

한파로 인해 냉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

어든 데다,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난방비를 많이 쓰다 보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에 들어가는 농산물들도 몸값이 오르면서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시금치는 1kg당 6098원으로 한 달 전 5302원에 비해 13.1%가 올랐고, 피망 역시 100g당 886원에서 1754원으로 98%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풋고추는 100g당 884원에서 2750원(211.1%)으로 세배나 증가, 피망 역시 100g당 886원에서 1754원으로 98%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노지에서 재배하는 월동배추와 월동무의 경우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남지역에서 90% 이상 생산되는 월동배추의 경우 겹잎과 속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얼어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작황 악화

생산량이 평년 대비 7~1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에서 95% 이상 생산되는 월동무도 땅속 부분까지 얼어 생산량이 평년 대비 16~26% 수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동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1포기 가격은 4576원으로 평년 2934원에 비해 56%나 증가했고, 월동무는 1개당 평년 1520원에서 현재 2604원으로 71.3%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수급조절물량을 방출하며 명절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세 대비 배추 40%, 무 30%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위에 냉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기온이 올라도 생산량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당분간 농작물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번 냉해를 입은 작물은 일조량이 많아지고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생산량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당분간 작물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85.38 (+21.61)
- ↑ 금리 (국고채 3년) 2.30% (+0.02)
- ↑ 코스닥 843.24 (+0.64)
- ↓ 환율 (USD) 1084.60원 (-7.50)

광주 땅값 1위 '충장로 LG유플러스'

m²당 1150만원... 전남은 목포 죽동 원조순대떡볶이 건물

광주 지가 7.89%·전남 5.42% ↑

광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7.89% 상승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6.02%)보다 높은 것으로,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지정, 도시첨단산단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도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광주는 7.89%, 전남 5.42%로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4.94%)와 비교해 평균 6.02% 상승했다.

광주 5개 자치구 표준지 868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은 효천1(남구),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남구),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광주가 5.21% 상승했다.

전남지역도 22개 시·군 표준지 6만 391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5.42% 상승해 지난해(5.2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남에서는 담양일반산단·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산업단지 등 완공과 기반시설 확충(장성), 로하스타운·바이오피드단지 조성(장흥)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LG유플러스 스퀘어(152.1m²)로 m²당 1150만원을 기록했고 전남에서는 목포시 영산로(죽동) 원조순대떡볶이 건물(76.0m²)이 m²당 377만원을 기록, 가장 비쌌다.

한편, 진도군 조도면 놀육도리 입야(1만3686m²)는 m²당 20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국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온누리상품권 구매 운동

설 명절 앞 5억3700만원어치 구입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5억37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위축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지난 2월1일부터 9일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펼쳐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송중욱 은행장 등 광주은행 관계자를 초청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대한 감사 표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지역민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열정이 담겨져 있으며,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개인 특별할인판매 진행중인 온누리상품권은 개인현금구매 시 기존 5% 할인율이었으나 오는 14일까지 10%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28일까지는 월 할인한도를 50만원까지로 광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등 1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산업 인재 양성 요람 '광주인자위'

5년간 430개 과정 1만4789명 양성

취업률 93%.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의 공동훈련센터인 호남직업전문학교가 지난해 실시한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인 스마트자동화제어 참가자들

(20명)의 취업률이다.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 지역 취업 시장에서 이같은 취업 프로그램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무료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 경쟁

도 치열하다. 기업체들도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곧바로 채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광주인자위측 설명이다. 지역 산업계 인력양성사업의 거점기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인자위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출범 5년을 맞는 광주인자위는 지난해까지 430개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1만4789명을 양성, 기업체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들 중 3245명의 신규 취업 준비생들을 160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게 지역 경제계 평가다.

올해도 광주지역 기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68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 2098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세관, 中企 해외 진출 지원

광주전남 KOTRA 지원단 업무협약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사진 오른쪽)은 12일 광주본부세관 11층 상 황실에서 '광주전남 KOTRA 지원단'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본부세관과 '광주전남 KOTRA 지원단'은 지역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수출관료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

제(이하 AEO) 제도를 활용하여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업무협약 일환으로 오는 3월6일 'KOTRA 글로벌 비즈니스 클럽' 회의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사업, FTA 전문교육 및 AEO 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협력 관계를 긴밀히 해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겨울이야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설연휴패키지 | 2018. 2. 14 ~ 18 (5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 스탠다드룸 ₩ 60,000
- 조식별도 1인 ₩12,000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